

		<h1>보도자료</h1>		<p>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p>
보도일시	2021. 9. 17 (금) 배포시			
배포일자	2021. 9. 17(금)	매 수	총 2 매	
배포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자	이창호 실장 (02-2179-1048) 임정진 과장 (02-2179-1133)	

KIC, 미국 진출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프롭테크 벤처투자 업계 현황 및 투자 전략 논의

KIC는 미국 뉴욕 주재 한국 정부, 공공투자기관, 민간 금융기관 및 티시먼 스페이어(Tishman Speyer) 운용사와 함께 프롭테크 벤처투자 업계 현황 및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진승호)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제40차 뉴욕국제 금융협의체(New York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16일 오후 (현지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뉴욕 주재 재경관을 비롯 정부관계자 및 공공 투자 기관, 증권사,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부동산 개발·투자사 티시먼 스페이어(Tishman Speyer)의 제니 윙(Jenny Wong) 전무는 “프롭테크는 단순히 부동산에 최신 테크 기술을 접목하는 개념적 차원을 넘어 실제 상업용 부동산의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부동산 시장 이해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윙 전무는 전세계적으로 프롭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 지난 10년간 프롭테크 분야 투자 규모 660억 달러 가운데 2019년에만 약 310억 달러가 유입되었을 정도로,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에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프롭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COVID-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기술, 가상 및 클라우드 소프트

웨어, 온라인 거래 시스템, 변화된 대출 방식 등을 부동산 부문에 접목하는 프롭테크 시장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행사를 주관한 KIC의 신용선 뉴욕지사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테크 산업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이해하고 향후 전망을 공유하는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기회였다” 고 밝혔다.

KIC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해외지사(뉴욕, 런던, 싱가포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과 우수한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지사 국제금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끝>

문의처: 대외협력실 임정진 과장
(02)2179-1133, jeongjin.lim@kic.go.kr

“KIC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kic.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